

# 경제 살리기·노동개혁 드라이브 가속화

## 임기 후반기 앞둔 박대통령 '관저 휴가'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함께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31일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구상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8월은 박 대통령의 임기반환점이어서 집권 후반기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올 하반기가 경제 활성화 및 각종 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다급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도 연말 이후엔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 것이 뻔하다.

##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 공공·금융 등 4대 개혁도 박차

한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힘있게 시작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반환점(8월25일)이 있는 8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박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 핵심은 '노동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달 28일 행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난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런 협의를 토대로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시급하다는 게 당 정부의 인식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면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상당한 모멘텀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포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상대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함께 공공·금융·교육 등 다른 4대 개혁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력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또 4대 개혁과 함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6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이 6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24개 국정핵심과제의 연내 달성도 도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말~7월초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직접 중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줄 바란다"면서 연내 달성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양만권 2019년까지 602억 투입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 에타조사 통과 내년 착공

현 정부 대신 공약인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 착공한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에 앞으로 기반구축비 393억원, 연구개발(R&D)비 202억원 등 모두 6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이 기존 범용 화학소재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의 핵심권역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는 오는 2019년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세풍산업단지에 부지 4250㎡, 건축 1856㎡ 규모로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화 연구개발 등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양성, 시험 분석, 특허 출원·등록 및 인증 획득 등을 돕는 기업 지원사업도 하게 된다.

특히 클러스터는 기존 저부가가치 및 장치산업 중심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기능성 화학소재를 활용한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사업체로 개편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핵심 기능성 화학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화학산업의 수익률 향상이 기대된다.

전남도와 산업부가 사업 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는 이번 사업의 미래 16년 동안 정량적 파급효과로 국가 전체에 약 3조7000억원의 생산효과, 1조원의 소득 유발효과, 약 1만48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지역에서는 2조7000만원의 생산 증대, 6000억원의 소득 증대, 7300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기술개발 핵심 사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고분자 등 전자정보소재 ▲전지 분리막, 태양전지 전해질 등 에너지환경소재 ▲도로, 인쇄 잉크분야 염료 등 염료화학 소재를 비롯한 4개 전략제품이다.

클러스터에 조성 예정인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연구소(가칭)는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핵심 연구개발 기술 및 실증화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 연계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한다. 이밖에 클러스터는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대중평화캠프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지난 1~2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와 목포에서 '2015김대중평화캠프'가 열렸다. 박지원(맨 왼쪽), 임수경(왼쪽에서 다섯번째), 설훈(여섯번째) 의원 등 캠프 참가자들이 2일 오전 김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 김대중 전 대통령 민주·평화정신 기려

### 서거 6주기 맞아 신안·목포서 '평화캠프'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18일)를 맞아 지난 1~2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와 목포에서 '2015김대중평화캠프'가 열렸다.

이번 평화캠프에는 김대중 정신 계승 단체 회원 등 700여명이 참가해 김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정신을 기렸다.

2일 오전 신안군 하의도를 찾은 방문단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을 연 뒤 하의 3도 농민운동기념관과 큰

바위굴, 모래구미 해수욕장 등을 방문했다.

전날인 1일에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목포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관람했다.

1일 오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콘서트'에는 박지원의원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나주 빛가람시데

### 이전 마무리... 직원 오늘 첫 출근

우리나라 농업경제 및 농촌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해 농업·농촌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 작업을 마쳤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2일 "지난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사가 준공된 뒤 최근까지 이전작업을 벌였으며, 3일부터 260여명의 직원들이 빛가람동 소

재 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빛가람동 청사는 지상 7층 지하 1층에 연면적은 3만5702㎡다. 1978년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각 분야 박사 8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의 연구인력이 국가 주요 농업 정책 수립에서부터 국제통상과 마을단위 농촌개발에 이르기까지 연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석유화학·조선 등 경제협력 논의

### 이낙연 전남지사, 러 무역대표부 대표 회담

전남도는 2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집무실에서 전남을 방문 중인 주한 러시아 연방 무역대표부 미하일 본다렌코 대표와 회담을 갖고 전남도와 러시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 지사와 미하일 대표는 러시아 정유회사와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기업간 협력문제를 비롯한 조선업 분야 중·소형급 선박 건조 및 수리, 러시아인 전남 의료관광, 러시아 민속촌 조성사업, 극동지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의 석유화학, 철강, 조선분야는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 이 업체들이 러시아와 경제적인 협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는 국제의료센터가 있어 병원측과 협의해 러시아의 의료진을 초청하는 등 의료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러시아도 의료기구(스텐트) 구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미하일 대표는 "전남기업들이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극동포럼에 이 지사를 초청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남도는 러시아에 석유화학제품, 철강, 플라스틱, 기초산업기계,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도내 수출기업을 모집해 모스크바에 무역교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제2회 '시인이 도다' 가을편 빛창공모전

여러분의 감성을 담아주세요.  
밝은광주안과가 제2회 '시인이 도다' 빛창공모전 가을편을 개최합니다. 빛창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선정한 밝은광주안과 눈모양별당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감성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 기간 : 2015년 7월 24일(금) ~ 8월 13일(목)  
발표일 : 2015년 8월 17일(월) 오전 10시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 가을, 단풍, 여행, 사랑 등 자유주제

**접수방법** |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best-lasik.co.kr)

**시상내용** | 대 상 (1편) : 문화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 (1편) : 문화상품권 20만원  
우수 상 (2편) : 문화상품권 10만원  
가 격(10편) : 문화상품권 3만원

문의  
밝은광주안과 기획실 ☎062-351-9938

밝은광주안과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식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 새생명탄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